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어린이를 위해 쓴
단 한 권의 그림책

“이제 너희는 더 큰 세상을 보러 떠나거라.”



한강 글 · 진태람 그림 | 문학동네

불편한 것, 따분한 것은 참지 않는
두 꼬마 선녀의 흥겨운 세상 여행

“2000년 8월 비가 무척 내리던 날 엄마가 되었고,
어린이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_한강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

한강 글 | 진태람 그림
문학동네

교육 성취기준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활동1 뭔가 신나는 일 없을까?

하늘나라에서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바빠 구름을 찢고 있어요.

두 꼬마 선녀는 늘 똑같은 일이 심심하고 따분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따분한가요? 또 언제 신난다고 느끼나요?

그때의 내 표정도 그려 보세요.

나의 따분한 표정

뭔가 신나는 일 없을까?

아이 심심해.



나는

..... 때 따분해.

나의 신나는 표정

저 아래 초록빛 세상 좀 보!

정말 예쁘다!



나는

..... 때 신나.

활동 2 입기 편한 날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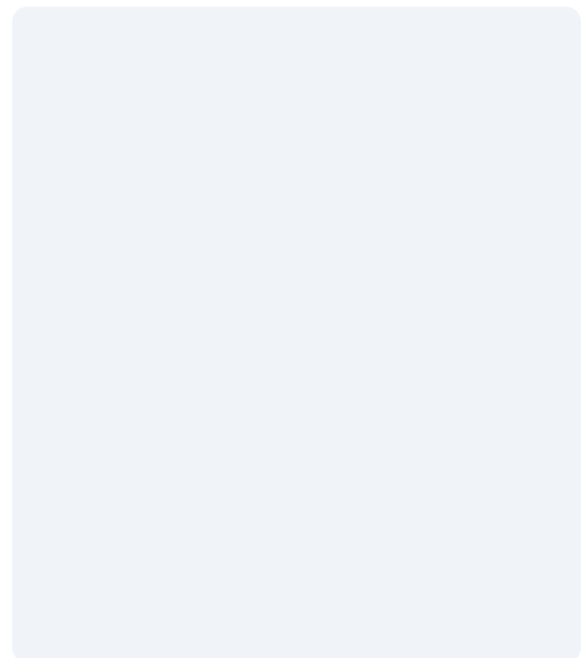
꼬마 선녀들은 거추장스러운 날개옷을 벗어 두고 달리다가 혼이 났어요.

할머니 선녀는 두 선녀에게
입기 편한 날개옷 두 벌을 만들어 주었지요.
두 꼬마 선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인가요?
그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은...



번쩍! 등등등 우르르 쿵쿵!

번개는 번쩍! 천둥은 쿵쿵!
 의성어, 의태어가 더해지면 말이 더 재미있어져요.
 아래에서 단어를 골라 빈칸에 써넣어 보세요.

*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에요.



꼬마 선녀가 은빛 창을 하나 집어 들었어.
 그런데 돌리며 장난을 치다가 그만
 구름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어.

이게 웬일이야?

팔뚝만 하던 창이 길어지더니 하며 세상이 밝아졌어
 “어! 신기하더! 세상이 다 보이네.”

등등등 우르릉 쿵쿵!

두 꼬마 선녀는 거리며 튀어 올랐지.
 또 출렁이는 먹구름 위에서
 구르며 웃었어.

두 꼬마 선녀가 누군지 알려 줄까?

은빛 창을 가진 꼬마 선녀의 이름은
 하늘빛 복을 가진 꼬마 선녀의 이름은 이야.



번쩍 빙글빙글 통통 깔깔 천둥 번개 쑹쑹 데굴데굴

활동 4 더 큰 세상으로

“이제 너희는 더 큰 세상을 보러 떠나거라.”

두 꼬마 선녀는 할머니 선녀가 준 노을빛 상자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났어요.

여러분은 가 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거기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아래 육하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고 글을 완성해 보아요.

* 육하원칙이란 신문 기사 같은 객관적인 글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룹니다.

누구와 가고 싶나요?	
언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생각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세요.

.....

.....

.....



